

# 農村地域社会 技術보급에 관한 세미나

## 농촌개발을 위한 適正技術普及団体회의



李 容 秀  
(중대농대교수)

東南亞地域工学団体總研盟 (FEISEAP) 주최, UNESCO 후원, 農村地域社会 技術普及에 관한 세미나 및 農村開發을 위한 適正技術普及団体 第3次 會議가 8월16일부터 8월20일까지 5일간 泰國의 首都 「曼谷」에서 開催되었다. 다음은 이 회의에 참석했던 이용수교수의 參觀기이다. (편집자 註)

### ◇趣旨 및 範圍

農村地域社会 技術普及에 관한 세미나 및 農村開發을 위한 適正技術 보급 團體會議는 東南亞地域工学団体總聯盟 團體의 年例行事의 하나로 農村地域社会에 어떻게 適正技術을 효과있게 보급하느냐 하는 課題와 國際協力社会에 접어들고 있는 時代相에 맞추어 相互技術開發情報는 勿論 이거니와 어떻게 協力の 場을 넓혀야 各國共通의 宿命的 課題인 農村福祉向上을 도모하느냐는 問題를 놓고 熟議하자는데 있었다.

따라서 論議의 軸점은 ①水資源과 水資源管理, ②農産物 保存加工, ③農業機械化, ④農家副業奨勵, ⑤農村燃料体系, ⑥農村地域에 대한 概念定立과 基盤造成에 두고 成敗談을 끄집어 내어서 문제점 위주로 科學的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이것을 발전의 發판으로 삼자는 심오한

哲學이 담긴 세미나요 회의 였다.

農土專門은 물론 隣接科學분야로써 農村技術 보급에 관계있는 광범위한 農學專門人, 社会学, 經濟學 專門人들과 實務者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適正農業技術開發 노력과 適正農業技術效果의 보급이라는 兩面性을 엿볼 수 있었다.

이는 問題를 微視的으로 過視함은 물론 總體的으로 圓滑한 農村技術普及의 構造的 定着圈을 찾아 보자는 실로 포괄성있는 問題接近方法으로써 東南亞 및 太平洋圈 國家들의 모임이라는데에서도 뜻을 찾아볼 수 있었다.

### ◇세미나

세미나는 各國代表들의 各國狀況보고에 이어서 준비해온 農業適正技術開發研究와 農業技術普及 관계연구리포트로 이어 졌는데 水資源과

水資源管理 研究에 編重된 감이 있었고, 영국의 전문가 「둔씨」의 東洋의 논농사(畝作)가 利用까지의 經費와 에너지는 그 消耗率이 가장 높다는 발표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국제적으로 수출량이 每年늘고 있는 밭농사(田作)의 밀(小麥)은 소비량이 매년 늘고 있는데 비하여 매년 소비량이 일정한 쌀농사를 固疾적인問題點으로 보느냐」는 나의 질문에 「둔씨」는 당황하면서 환경적응론을 펴서 질문의 답으로 하려했으나 역시 매크로싸이드에서 흥미있는 課題이었다. 또한 말레이시아 「숨씨」의 地下水 灌溉開發研究發表에 대해서 本人이 國內에서 실시하고 있는 植物生理에 맞는 비닐 被覆法으로 금년 初期 가뭄을 거뜰히 넘기고 正常發育하고 있다는 코멘트로 오히려 積極的인 灌溉形態 보다는 地下水 保存活用面이 經費나 에너지면에서 유리하지 않느냐는 質問을 했는데, 역시 너무 適正技術開發을 강조하다 보면 쉽고 유리한 다른 面을 잃는다는데 좋은 對照的 事例가 되었다.

또한 필리핀의 「로물로」가 발표한 潮水를 이용한 小型水力發電施設은 三面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로써는 큰 관심거리 이었다. 小型 피스톤을 潮水의 汗滿의 힘으로 움직여 보자는 것이었는데, 數的調節로 큰힘을 낼수 있는 가능성이 엿보이는 과제 이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서카다모쥬」씨의 農家水準別 小溜地活用論에서 微量元素可 給態化에 關連하여 1935년까지 世界의 食糧생산이 政體적이었다가 肥料 農藥의 출현으로 生産位加 增産이 일어났는데 우리나라는 客土와 源泉의 맥반석따위로 微量元素欠로 時代를 극복하고 있다는 정보에 한국대표가 이야기 하면 잠이달아난다는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본인이 발표한 農村技術普及에 關한 고찰에서 우리나라의 경우를 들어 文盲없는 底辺과 文藝編重教育熱의 科學技術教育으로의 轉換 및 枝葉的 農村發展計劃에서 國家의 次元의 最高指導者가 주관한 새마을 운동방법이 現在를 낳았다는 本質說明과 農家の 立場에서 自体構造의 零細性和 工業化에 따른 離農現象으로 元老

들의 集團(55세가 75%)인 農村은 科學技術을 받아들이는데 애로가 있다는 論考에서 各國 참가자들이 진지하게 敬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

그러나 官依存度가 높은 우리나라 農家は 技術人力管理에 박차를 가하여 均衡있는 農村發展을 지속성 있게 밀고 나가지 않는 한 東南亞에서 뒤떨어진 事例가 될수 있다는 생각에서 멈춰서 졌던 것도 사실이다.

### ◇ 시찰

8월19일은 7시30분부터 시작하여 아세안기술연구소(AIT), 체렌체프트랙터공장 등을 둘러보았는데, 太陽熱小集器로 차를 끓이고 太陽熱溫水器, 乾燥器, 風車등이 연구되고 있었는데 亦是自然資源에 合目的的으로 人爲的 노력을 가해서 얻어지는 모든 것이 資源이라는 定義속에서 살게 되었다는 것이 실감케 되고, 우리나라에는 겨울에 맑은 날이 많고, 년강우량도 1,200mm에서 겨우 15% 밖에 利用하지 못하고 있고, 초속 11m의 바람이 부는 날이 110일이 되는 제주도에도 後進國들의 고질적인 短期的研究에 그쳐서 自然資源이 잘 活用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니 70억\$어치씩 油類를 들여오는 나라로서 再考의 여지가 있지 않는가 생각되었다.

또한 예상했던 대로 트랙터 공장에 다달았을 때 너무 어린 소녀 소년들이 뱃방을 돌리고 있는 것은 역시 技術人力管理 問題의 現장에 온 기분이 들었다.

그리고 오후엔 आयुदा 古都와 寺院을 돌아보았는데, 벽돌文化라는 감이 짙었고 참참히 各國代表들과의 비공식 잡담은 과거 商人들의 商品去來의 商談이 아니라 科學技術人들의 接觸이라는 점에서 技術輸出入 時代를 맞고 있다는 느낌이 컸다.

전체세미나는 숨가쁜 워킹그룹의 자기 司會領域要約에 이어, 「분유불」씨의 綜合評價로 끝을 맺었는데 그 대략을 기술해보면,

● 適正技術農村普及에서 너무 適正을 강조한 나머지 오히려 진전된技術導入에 차질이 될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고 실로 이것은 적어도 국제

도시화에 박차를 加하고 있는 「방콕」이 자전거에서 부터 삼륜차 추력개조 승용차 대형빠쓰가 난무하고 있어 까스와 교통체증의 전시장이 되고 있는 것은 쉽게 찾아볼수 있는 적정기술을 너무 강조한 사례가 될 수 있었다.

●적정기술개발에 있어서 持續性 결여로 國際 競争力의 秘法인 質의 低下 즉, 상대적으로 商品質을 잃는다는 것이 지적되었다.

●農村地域社会는 적어도 集大成될 수 있는 單位가 되어야 效果의 技術普及의 場이 될수 있다고 지적하고 國家의 次元에서 總體的으로 農村地域社会를 基盤으로 均衡있는 접근을 시도함이 효과적이라는 의견이었다.

●技術人力의 水準別 繼起의 管理는 開途國에서 벌써부터 問題視되고 있으며 國際的 세미나의 개최에 의한 各國의 水準別 技術指導級人力의 管理는 이제 當面課題가 되고 있으니 農村技術普及及은 技術人力管理의 원할을 도모할때 機能을 발휘할 수 있는 農村技術普及이 기약될 것이라는데 의견을 모았다.

### ◇ 會議

워킹그룹은 각나라의 해당분야 인적자원역할이 부여 되어 있는데 제 3차 8월20일 회의는 各國의 國際水準급이나 國家的 次元의 세미나를 國際水準級 세미나와 연계성 있게 개최해서 파급효과가 크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원칙아래 세미나를 통해서 얻어진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세미나를 개최할것을 권유하면서 폐막 되었다.

- 1983년 農業技術訓練教科課程 調整研究「인도네시아」
- 1984년 農業技術普及에 있어서 諸障害 要因 타개에 관한 研究 「필리핀」
- 1985년 農業技術普及 모델에 관한 研究 「한국」
- 其他

마지막으로 조정자 역할인 「분유블」씨의 「우리가 여기에 모여서 이렇게 열면 여러날을 보내게 된것은 우리의 농촌을 살리자는 결의요, 발전

시킬 수 있는 인간관계를 맺자는데 있다」말에 무엇인가 따뜻한 人間愛를 느끼는듯 했다.

끝으로 본인이 電通으로 워킹그룹승락서를 요청받은것 7월 7일, 사실상 준비기간 약 1個月 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세미나, 워킹그룹회의의 발표문작성에 동문서주한데다가 자동적으로 임무가 부여되는 몇가지 임무때문에 충분한 준비가 되지 못한채 떠났던 것은 변명아닌 사실이었다는 것을 밝히고 싶다.

그리고 그렇게 짧은 동안에 오스트리아, 파푸 뉴기니아,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영국, 타일랜드, 일본등지의 친구들과 온정을 나눌수 있었다는 것은 아마도 지구의 인종은 한갈래라는 큰 차원에 그 원인이 있었는지 모른다.

바라건데 이렇게 다져지는 國際友誼를 충분히 활용하고 技術의 相互協力을 통해서 各國農村地域社会의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기를 바라며 技術開發없이 살아 남을 수 없는 國際社会 技術協力時代에 즈음한 各國의 각오가 뚜렷해지기를 기원한다.

끝으로 타이랜드에 체재하는동안에 느꼈던 몇가지를 소개한다면 거의 매주 크나 적으나 국제 회의와 세미나가 끊임없이 열려서 만약 수용태세만 갖춘다면 세미나를 통해서 國際的 水準에 쉽게 끌어 올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느꼈고, 수도 헤아릴 수 없는 사원들로 불교종주국의 인상을 주면서 조상들이 물려준 유물을 세계공원에 잘 활용하고 있다고 믿어 졌으며 아직도 농업인구가 80%나 되는 東南亞細亞는 유유히 60%정도가 적정한 농업인구%가 되지 않느냐는 의견들은 各國의 各産業別 構成의 定着點에 문제를 제시해주고 있었다.

실제로 우리나라를 이에 대비해 볼때 秀麗한 山岳의 나라, 四季節의 變化無常한 나라, 沿岸의 多島海 등을 생각하면 우리는 이自體 天然公園을 연상케 했으며 88올림픽을 계기로 環境管理의 國民水準을 높혀 간다면 世界人類의 共通 慾求인 族行의 目的地化도 가능하다고 생각되어 흐뭇해지는것은 어찌할 수 없었다.